
권 혁 철

부산대학교 교수

“어느 누구나 쉽게 인터넷에서 바른 우리말글을 배울 수 있도록 돕는 평생 교육 사이트입니다. 초·중·고등학생들은 배움터와 글쓰기 교실, 어문 규정, 철자 검사기 등을 통해 바른 우리말글살이의 바탕을 다질 수 있고, 일반인은 자신이 쓴 글의 잘못이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범하는 오류를 교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어 생활의 길잡이로 자리 잡은 누리집 ‘우리말 배움터’를 소개하는 글이다. ‘우리말 배움터’와 그 운영자인 권혁철 부산대학교 공대 정보컴퓨터공학부 교수는 “누구나 바른 말글살이를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우리말을 살리고 바로 쓰는 데 크게 이바지한” 공로로 지난 2005년 ‘우리말 살리는 겨레 모임’에 의해 ‘으뜸 우리말 지킴이’로 선정된 바 있다. 권 교수는 그해에 그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은관문화훈장을 받기도 했다.

권혁철 교수를 만나 ‘우리말 배움터’와 함께한 어제와 오늘, 그리고 일상에서 묵묵히 실천하고 있는 우리말 사랑에 대해 들어본다.

답변자: 권혁철(부산대학교 공대 정보컴퓨터공학부 교수)

질문자: 장승욱(작가)

때: 2009년 11월 17일

곳: 부산대 권혁철 교수 연구실

장승욱: 선생님께서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셨는데, 어떻게 국어와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요?

권혁철: 제가 대학원에서 처음에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전공했습니다. 제가 대학원에 들어간 게 1987년인데, 당시에는 컴퓨터라는 게 거의 보급되지 않았고, 컴퓨터 자체가 아주 생소한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궁리하다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한국어, 즉 한글을 이용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 2년 그런 작업을 해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말의 조사 구조라든지 하는 것들이 컴퓨터와 맞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영어는 조사나 어미 같은 것이 큰 변화가 없어서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적합한데, 우리말로 하려니 기술적인 한계가 있어서 실용화하는 데는 걸림돌이 많았습니다.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하거나 개선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환경에 적응시켜야 하는데, 그것이 어려웠습니다. 지도 교수님하고 의논을 했는데, 그분이 그러면 우리 한번 기계 번역을 해 보자, 컴퓨터로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해 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계 번역을 시도하게 됐고, 한국어를 어떻게 컴퓨터에 적용할지를 연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공부하게 됐습니다.

장승욱: ‘우리말 배움터’는 처음에 어떻게 구상을 하게 된 건가요?

권혁철: 1990년대 말에 인터넷을 뒤져 봤더니 공명철 선생님이 만든 고등학생용 누리집이 있고, 그 밖에 몇 군데가 더 있었는데, 보기에 내용이 알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에서 처음에는 조그맣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맞춤법 검사기를 붙이고 하다 보니까 점점 커졌습니다. 그때는 그냥 사람들이 우리말을 잘 쓰는 데 도움이 되게 하겠다는 생각뿐이었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만큼 와 있더라고요.

장승욱: 지금 ‘우리말 배움터’를 운영하시면서 부산대의 인공 지능 연구

실, 한국어 정보 처리 연구실, 그리고 나라 인포테크라는 사업체에도 관여하고 계신데, 이들 사이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권혁철: 우리 연구실 이름이 인공 지능 연구실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기계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게 하는 것이니까 크게 보면 인공 지능이죠. 그런데 전에 국가가 우리 연구실을 5년 동안 특별히 국가 지정 연구실로 지정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이름을 한국어 정보 처리 연구실이라고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국가 지정 연구실로 지원받을 때는 한국어 정보 처리 연구실이라고 했고, 공식적인 이름은 인공 지능 연구실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개발하는 소프트웨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 학생이 졸업하면, 그걸 이어받은 학생이 같은 생각, 같은 철학을 가지고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실제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나라인포테크를 만들었습니다. 연구실에서 개발한 모든 기술을 나라인포테크에서 실질적으로 실용화하고 상품화하는 것입니다. 반면 인공 지능 연

구실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그것을 실현해서 실용화가 가능한지를 검증하는 소임을 맡고 있습니다.

장승욱: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어 정보 처리 연구실은 지금은 없는 건가요?

권혁철: 이론적으로는 존재합니다. 국가 지정 연구실로 한 번 지정되면 정부의 지원이 없더라도 이름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한국어와 관련된 것은 그쪽 이름으로 발표하고, 다른 기술적인 문제와 관련된 것은 인공 지능 연구실 이름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장승욱: 그러면 ‘우리말 배움터’는 인공 지능 연구실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권혁철: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인공 지능 연구실이 아니라 저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고, 김해연 씨라고 국어를 전공한 나라인포테크의 직원 한 명이 ‘묻고 답하기’에 답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나라인포테크에서 판매한 소프트웨어 수익금을 가지고 ‘우리말 배움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장승욱: 제가 어제(2009년 11월 16일) ‘우리말 배움터’에 들어가 보니까 오후 5시 7분 현재 3587만 8213명이 들른 것으로 집계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말 배움터’를 찾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권혁철: 아마 여러 번 다녀간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말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누리집이 적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맞춤법 검사기, 로마자 변환기 같은 다양한 도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도구를 이용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들르시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승욱: 선생님 말씀대로 '우리말 배움터'에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권혁철: 아무래도 맞춤법 검사기가 아닐까요. 그리고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묻고 답하기'에 현재까지 묻고 답한 것이 5만 건이 넘습니다. 그것은 2만 5000건 이상의 질문에 대해 답을 했다는 뜻이고, 그만큼 많은 정보가 쌓여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귀중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장승욱: 그러면 '묻고 답하기'에 선생님께서 직접 답한 것도 많겠네요?

권혁철: 아주 많지는 않지만 제법 됩니다. 저는 아무래도 시간 내기가 어려워서 지금은 김해연 씨가 3, 4년째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장승욱: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을 하려면 국어에 대해서 연구를 아주 많이 하셔야 했을 텐데요, 국어를 얼마나 공부하셨습니까?

권혁철: '묻고 답하기'에서 저희가 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립국어원에 문의를 합니다. 국립국어원과 차이가 있다면, 저희한테 물으면 좀 빨리 답을 해 드린다는 정도겠죠. 국립국어원에서는 한 분이 그 일만 맡아서 하기는 어려울 테니까요.

저 개인적으로 우리말, 우리글에 대해서 공부한 건 '84년부터일 것입니다. 언어 학회에 형식 언어 연구회라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분으로는 장석진, 이정민, 신수송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런 분들과 같이 3년

동안 우리말을 컴퓨터로 처리하기 위한 이론적인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분들께 언어학의 기초 이론들을 배웠고, 또 계속 박사 과정을 다니면서 관련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것도 많습니다. 또 제가 맞춤법 검사기를 만들면서 모든 자료를 제가 직접 넣었고, 오류 형태도 제가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 저 책을 공부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주위들은 게 많아서 어느 정도는 안다고 생각하지만, 이론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 그냥 일반인들한테 답할 정도지, 국어학자들처럼 깊이 있는 내용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장승욱: 저는 ‘우리말 배움터’에서 ‘외래어/한글 표기 상호 변환기’를 자주 씁니다. 그런데 안 나오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보완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권혁철: 지금 계속 넣고 있기는 하지만, 제가 늘 개선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연말쯤에 프로그램 성능도 높이고, 단어도 추가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점은 계속 단어를 늘리고 있지만, 실제 그 나라에서의 발음을 잘 모르다 보니, 어떻게 표기해야 할지 모르는 단어들이 많은 것입니다. 개선은 하도록 하겠지만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프로그램의 정확도도 높여야 하고요.

장승욱: ‘우리말 배움터’에 보통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이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권혁철: 다른 데서 가져온 것이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을 부를 때 호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의 아버지를 부를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표준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는 저희가 맞춤법 검사기 아래아

한글용을 상업적으로 팔고 있기 때문에 사용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와 똑같은 기능을 하는 '오픈 오피스'를 깔고 쓰시면 저희 시스템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누리집에 보면 '맞춤법 검사기 함께 만들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오시면 저희 프로그램을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장승욱: 선생님께서 '우리말 배움터'를 평가하실 때, 가장 큰 성과는 뭔가요?

권혁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뭔가 묻고 답을 얻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걸 통해서 맞춤법 검사기를 많이 개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질문 자체가 많이 다르니까, 사람들이 이런 유형을 자주 틀리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 그런 형태를 규칙으로 만들어 맞춤법 검사기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말 배움터' 덕에 훈장을 받은 것도 하나의 성과로 볼 수 있겠지요.

장승욱: 훈장을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권혁철: 사실 전 어이가 없었습니다. 컴퓨터를 하는 사람이 그런 걸 받는다는 것이 이상했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아직 받을 때가 안 됐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훈장을 주니까 무척 고마웠고, 그게 또 제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장승욱: 그해에 '우리말 지킴이'로도 뽑히셨지요? 그 뒤로도 계속 '우리말 지킴이'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권혁철: 제가 '우리말 지킴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할 일

을 해 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우선은 ‘우리말 배움터’를 통해서 바른 우리 말이 무엇인지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맞춤법 검사기를 통해 최대한 순우리말 혹은 우리말 투의 한자어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투의 한자어라든지 외래어는 가능하면 안 쓰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많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정보가 잘못된 것도 있었고요. 예를 들어 ‘야채’는 많은 사람들이 일본식 한자어라고 생각했는데, 조선일보의 조사에 의하면, ‘야채’라는 말이 《조선왕조실록》에 200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채’는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치고 싶지만 매우 자주 쓰니까 어쩔 수 없이 못 고치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맞춤법 검사기를 만들면서 그 속에서 되도록 우리말에 맞는 표현과 단어를 쓸 수 있게 노력하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스스로 밖에 나가서 ‘우리말 지킴이’라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장승욱: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토박이말 낱말을 쓰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시는 듯합니다.

권혁철: 학생들에게 강의할 때도 최대한 우리말, 토박이말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안 써야 할 말이 무의식 중에 튀어나오니까요.

장승욱: 홈페이지라는 말 대신 누리집, 일본어 ‘쓰키다시’대신 ‘결 안주’라는 말을 쓰시는데, 이렇게 외래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권혁철: 제일 중요한 것은 언론에서 다루는 거겠지요. 예를 들어 텔레비

전의 자막을 보면 ‘급하다’는 뜻의 ‘급(急)’ 자를 요즘 아무 데나 붙여서 씁니다. ‘급흥분’, ‘급출발’...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제가 일본 텔레비전을 안 봐서 모르긴 몰라도, 틀림없이 ‘급(急)’ 자를 막 붙여 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보면 정말로 화가 납니다. 언론사들이 의식을 가지고 바뀌 나가야 합니다. 언론에서 쓰는 말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체화되고거든요. 언론에서부터 바르게 쓰고, 바뀌 쓰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교과서에서도 될 수 있으면 외래어보다 순우리말을 가려서 뽑아 쓰고, 그것이 학생들에게 익숙해지게 해야 합니다. 특히 영어 교과서나 참고서에는 영어 투의 표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먹고자’의 ‘~고자’라는 의미가 우리말에서 사라지는 듯합니다. “밥을 먹고자 갔다” 아니면 “밥을 먹으려고 갔다”고 해야 할 것을 “밥을 먹기 위해서 갔다”고 합니다. 전부 ‘~기 위해서’가 돼서 ‘~고자’나 ‘~려고’ 같은 표현이 사라져 버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공부를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공부를 할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도 비슷한 예입니다. 교과서에서 이런 표현 하나하나를 가다듬어야 합니다.

장승욱: 요즘은 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권혁철: 하루에 강의 이외의 대부분 시간은 맞춤법 검사기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보냅니다. 최근에는 휴대 전화 메시지를 맞춤법에 맞게 고쳐서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층이 쓰는 문자 메시지를 보면, 우리말이 파괴되었다 정도가 아니고, 우리 세대는 거의 읽고 이해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장승욱: 그래서 ‘외계어’라는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권혁철: 그래서 그걸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준말로 바꾸는 방

법을 집중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단어로 보면 현재로서는 96퍼센트 정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자체로 보면 85퍼센트 정도가 가능합니다. 현재는 이게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두 번째로는 맞춤법 검사기를 만든 지가 17년쯤 되다 보니 초기 자료와 현재 자료 사이에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 맞게 고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승욱: 그러면 맞춤법 검사기의 기능이 선생님 스스로 평가할 때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다고 보십니까?

권혁철: 지금까지 온 것보다는 갈 길이 더 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자주 틀리는 형태를 맞춤법 검사기가 고치게 하는 데 중점을 두었는데, 이제는 자주 틀리는 게 아니라 실수로 가끔 틀리는 것을 고치는 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사람이 혹시 우연으로라도 틀릴 것 같은 것들을 시스템이 스스로 생각해서 고칠 수 있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문서 안에서 똑같은 복합명사를 띄어 썼다 붙여 썼다 하는 문제를 찾아줄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장승욱: 앞으로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권혁철: 기술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의미를 파악해서 우리말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건 맞춤법 검사기뿐만 아니라 기계 번역이나 다른 데에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죠. 다시 말해 우리말을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장승욱: 이렇게 국어와 관련된 일을 해 오시면서 어려움도 많았겠지만, 그만큼 보람도 크시겠습니까.

권혁철: 처음에는 상당한 사명감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7년, 18년쯤 되다 보니까 이제는 사명감 같은 것 없이 그냥 생활의 일부로 하고 있습니다. 길을 가다 틀린 걸 보면 무의식중에 ‘아 저걸 적어 뒀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무슨 보람이라거나 하는 것과 무관하게 그냥 제가 살아가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장승욱: 오랜 시간 좋은 말씀 들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권혁철: 고맙습니다.